

##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성장과 한국 국제크루즈 산업 활성화 논의의 장 개최

-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7월10일(수) ~ 12일(금)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주도(도지사 오영훈)와 공동으로 7월 10일(수)부터 7월 12일(금)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4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로, 매년 아시아 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핵심 관계자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 올해는 Royal Caribbean 크루즈, MSC 크루즈, Princess 크루즈, Costa 크루즈 등 참석 예정

이번 포럼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글로벌 크루즈의 트렌드와 협력’, ‘선사가 바라본 한국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도전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세션과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지역 운영 전략을 소개하는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 선사 간 공식 비즈니스 미팅,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관련 국내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크루즈발전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www.asiacruiseforu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한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기항지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장	최재환 (044-200-5250)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성 (044-200-5277)

